

『 사모, 목회자의 아내 』

박순용 목사 | 하늘영광교회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에 관하여 성경이 특별히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생각 해볼 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여성

성경은 초대 교회 때부터 여성에게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맡기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페미니스트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마치 철폐해야 할 악습과 같이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적대합니다. 여성의 인권을 주장하면서, 현재의 남성 중심 문화의 바탕에 성경의 가르침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잘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세기부터 펼쳐지는 교회 역사를 보면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교회 안의 여성들이 굴욕적이고 불평등하다는 의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세상이 남녀 관계를 왜곡하고, 여성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교회가 회복시켜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누구나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상태로 서로 동등하게 사귀을 가졌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물론 이후, 성경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자들이 나타나긴 하였지만, 이는 그들이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과 반하는 행동을 한 것일 뿐입니다.

교회는 오히려 여자들을 세워주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맡는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기꺼이 자신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 것입니다. 단, 하나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질서를 따라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무질서하지 않았습니.

그리스도의 한 지체된 사모

사모 또한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모는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규범적인 표현으로 정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가 자연스럽게 교회 안의 일반적인 여성들과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에 반응하여서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가 사모의 역할을 규정하고 그 틀 속에 사모들을 집어넣어 따르도록 하는 것은 율법적인 짐이 될 뿐입니다. 계속해서 짓누르고, 정죄감을 느끼게 하는 감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에 만연해 있는 "사

모는 반드시 이러해야 한다"라는 통념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사모를 성도요 그리스도의 한 지체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다른 틀과 기준으로 묶어두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모, 목회자의 아내

그렇다면, 사모의 역할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모는 먼저 한 그리스도인 남편의 아내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과 교회라는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사모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대한 역할은 목회자인 남편의 아내로서, 남편이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일을 맡는 것보다 이 일이 중요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모의 역할입니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남편을 안정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작은 역할이 아닙니다.

사모와 가정

특히, 목회자 가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가정은 여러 가지로 사모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녀를 돌보고 양육하는 일입니다. 일반 성도의 아내 또한 가정을 돌보는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지만, 목회자 가정의 어머니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가정과 많은 성도 앞에 비취지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목회자 가정을 주시하며 배우고 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모가 목회자 가정의 자녀가 안정적으로 자라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목회자인 남편이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일에 사모의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모가 이 일에 헌신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루터와 케티

루터가 42살이 되었을 때 26살이었던 케티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사모 케티는 사역자인 루터의 아내로서 역할을 잘하였습니다.

루터는 돈에 관하여서 매우 규모 없이 사용하는 편이었습니다. 돈을 관리하지 못하고, 계획적이지 못하게 사용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케티와 결혼한 후에 루터 가정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모 케티는 루터의 집 안에서 벌어지는 대소사를 헌신적으로 돌보았습니다. 밭 가꾸는

일, 학생들을 집으로 모셔서 학습시키는 일 등등 다양한 일들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녀들도 여섯을 낳고, 양육하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남편 루터가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일들을 도맡았던 것입니다.

에드워드와 사라

조나단 에드워즈는 사모인 사라가 가정을 잘 돌봐주는 것에 깊은 감사와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는 항상 많은 설교와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으로서 가정을 돌볼 시간이 제약되는 것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목회에 전념하는 동안에 사라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치고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모습에 힘을 얻었습니다.

사라가 목회자의 아내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면서 감당하는 모습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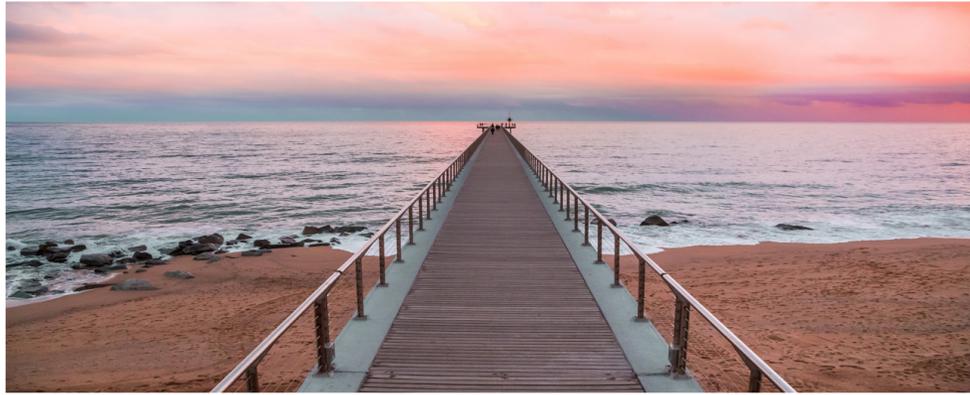
마치며

조엘 비키는 부부에 대해서 이처럼 말했습니다. "남편은 섬기는 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있고, 아내는 그런 남편을 온전하게 할 역할과 책임이 있다."

남편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일반적인 부부 안에서도 여성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책임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런데 목회자는 교회와 묶여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 안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 교회와 엮여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목회자의 아내인 사모는 가중치가 있습니다.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중대한 사역과 묶여 있는 남편을 온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절대 작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서 평생 교회에 헌신해야 할 소명을 가진 자입니다. 사모는 그런 남편과 평생을 함께하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역을 남편과 한 몸으로서 돕는 것입니다.



결론

목사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은혜로 그 사랑을 전하는 직분을 맡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너무 모릅니다. 한없이 작고 가벼운 앞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성자를 내어주시실 만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려고 힘쓰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향한 행실이 한없이 방자합니다. 사랑이 진실하지 못하고, 지속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충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단지 우리의 이익과, 완화에 따라서 찾고 의지하는 수준입니다.

도와주시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조아려, 회개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구하며 아버지 품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로 우리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한 속에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성과와 열매를 바라기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가장 앞에, 가장 가까이에 두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뜻대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사랑하는 것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어 도와주소서.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죄의 짐에 눌리고 양심이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에조차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과, 나를 사랑함에 집중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진실로 그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풍성하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친밀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섬사는 은혜의 도움들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실함 속에서, 주께서 부으시는 힘과 생기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고 싶습니다. 죄된 본성을 지닌 한계 있는 우리 자신의 무엇으로 소모되지 않고 싶습니다. 대양과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섬기고 싶습니다.

月刊 참고추

2022년 2월호 통권 11호

News

◀3월 14일 정기모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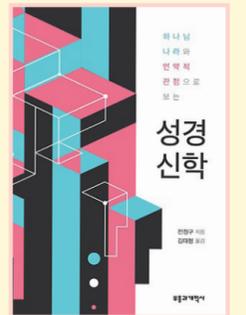
[대담]

-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는 없네 (8장 : 루터와 에라스무스: 교회 개혁에 대해, 9장 : 루터는 뭐라고 하는가)



[책나눔]

- 하나님 나라와 언약적 관점으로 보는 성경신학 (1장 : 창조 언약과 하나님 나라)



1주	강성대, 김명석, 배국환, 장국중, 정병윤 (온라인)		
2주	강사명, 강동훈, 김완술, 박지성, 이병석, 신락규, 이도영, 차지태	정기 모임 2, 3, 4, 6, 9, 11, 12월	
3주	김영제, 강성일, 김명일, 김종원, 박종성, 신용화, 이범구, 정우열, 최중서	정기 세미나 5월 30일 - 6월 1일	
4주	김영채, 강소양, 김선민, 김준환, 박혁, 안기문, 이성준, 최병준	컨퍼런스 10월 24일	
5주	김훈, 강육남, 김성민, 김중구, 박재훈, 오준석, 이원범, 최신철	부부 수련회 1월 23-24일	
6주	이성규, 고병성, 김시은, 박상우, 서재길, 이준홍, 이근복, 최태환	어름 방학 7, 8월	
7주	정중남, 권오민, 김양수, 김학재, 손아론, 오태환, 임정택, 전기준, 한국일		
8주	최은상, 김대섭, 김용석, 김영남, 박영규, 송영훈, 이대원, 정영수, 황범진		

✦참교추 모임안내

광명민음교회(광명)	높은뜻교회(성북)
광야의섬교회(수원)	남촌중앙교회(인천)
그영광교회(덕양)	두루선교교회(서초)
귀리성전교회(구리)	다정성전교회(대전)
개포중앙교회(강남)	동행교회(시흥)

✦2022년 회원교회

예수생명교회(부평)	예수바람교회(구리)
은혜의숲교회(하남)	
주님의숲교회(수원)	
주님의기쁨교회(서산)	
제주시민교회(제주)	
제자교회(청주)	
참사랑교회(동대문)	
총만한교회(시흥)	
하늘가족교회(금천)	
하늘기쁨교회(부천)	
하늘소망교회(양평)	
하늘영광교회(강동)	
함양민들레교회(함양)	

물면동신교회(강서)	예수생명교회(부평)
백마누리교회(일산)	은혜의숲교회(하남)
삼산중앙교회(해남)	주님의숲교회(수원)
생철교회(김해)	주님의기쁨교회(서산)
세계로교회(인천)	제주시민교회(제주)
송정교회(포천)	제자교회(청주)
심플교회(김포)	참사랑교회(동대문)
사랑샘은혜교회(수원)	총만한교회(시흥)
양우리교회(강동)	하늘가족교회(금천)
양선교회(도봉)	하늘기쁨교회(부천)
영남교회(대구)	하늘소망교회(양평)
오반교회(양평)	하늘영광교회(강동)
예수바람교회(구리)	함양민들레교회(함양)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자들에게

박순용 목사 | 하늘영광교회



(고전 1:18, 개정)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고린도 교회와 지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을 마음 깊숙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철학이 추구하는 지혜를 높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성도들 중에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려고 연연중에 수사적인(rhetorical) 능력을 뽐내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반박하고자 합니다. 교회가 소유한 능력은 철학적인 지혜, 곧 수사적인 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2장 5절에서는 "너희 믿음이 사랑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가진 '소피아(지혜)'의 한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믿음은 그것으로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소유한 것은 '소피아'만이 아니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들이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 후, 그들은 자신들이 깨달은 십자가의 비밀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과 관련하여 사도들의 증거에 담긴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들이 말한 십자가의 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단순한 어떤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좋아하던 지혜로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이후 사도들의 증거에는 '본질이 담겨 있었 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이 성령을 통하여 경험하고, 깨닫고, 소유한 것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소피어를 넘어서는 참 능력을 증거 속에 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증거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한 실체를 생생한 이해의 깊이로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습니까? 혹시, 사도들과는 다르게 십자가에 관한 어떤 신학적 지식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본질을 담아내지 못하고, 바울이 본문에서 경계하는 그리스 철학의 지혜와 수사적인 표현 정도만을 증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만이 전부어서는 안됩니다. 사도들과 같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경험적으로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현실 속에 경험되는 소피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의 경험 속에서 그렇지 못한 사역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면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도와 같은 말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내용을 강조하면서 되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렇게 그들이 전하는 말들에 힘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매우 수사적이고, 허공을 치는 듯이 들립니다. 포장지는 화려한데 내용물이 없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단어와 명제들만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십자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말하지만, 정작 왜 십자가가 중요한지를 말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강조하지만, 정작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그 안에 담겨 있는 찬란한 보화를 꺼내어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단순히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입니다." 등의 진술들만을 반복할 뿐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으면 의문만 늘어가고 마음이 답답해지게 됩니다.

왜 이런 모습을 그들이 갖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설교자 자신이 사도들과 같이 십자가의 능력을 생생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자신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비판하던 소피아에 해당하는 단순 지식만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우리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가 소유한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의 실체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말할 때 결코 수사적인 표현만을 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실체를 구체적으로 바라보면서 기술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를 읽게 될 고린도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수렁에 깊이 빠져 있던 자들입니다. 헬라 문화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 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이 고백을 찬양과 함께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는 강력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바울은 이 역사의 목격자였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십자가의 능력을 말할 때, 그 표현은 어떤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이 아닙니다. 소피아에서만 머물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들 속에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자신과 고린도 교회 안에 나타났음을 생생하게 공감하는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젊은 목사 이야기

한 젊은 목사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사회적으로 매우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세상 자랑을 뒤로 한 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영혼에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어떤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전한하게 할 만큼의 강력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생각 일까요? 그가 목회하기 직전에 쓴 편지에 이렇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시대는 복음의 메시지에 내재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알아보지 못하는 비극적인 실책이 범해지고

있다. 심지어 교회의 사역자들과 성도들도 그렇다."

그는 세상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의 메시지에 내재된 경이로움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에 마음이 불붙었던 것입니다. 사무치도록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편지를 이어갑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돌아가신 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니! 그런데 어떻게 사람들은 이 사실을 듣고도 이처럼 잠잠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도 이처럼 수동적일 수 있을까? 이것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해본다."

이 목회자가 교회에 부임한 후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령에 불이 붙은 채로 복음의 영광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이전에는 방랑했던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사역자의 외침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영광과 복됨을 정말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목회자의 설교와 이전 사역자들의 설교에 선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 복음의 영광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소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생생하게 알고 경험한 복음의 감동과 경이를 강단에서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로이드 존스'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목회자 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에 내재된 경이로움과 놀라움을 알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복음 메시지에 내재된 경이와 놀라움을 알지 못하면 설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복음을 단순한 지식으로 말할 뿐입니다. 복음 안에 담긴 경이와 놀라움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도들 또한 자신과 같은 수준의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복음에 대한 어떤 정보는 알고 있지만, 복음 안에 담긴 실체는 소유하지 못하는 위선자들을 양산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를 진실하게 살펴야만 합니다. 소피아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바울과 사도들과 같이 실체를 알고 소유해야 합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경이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아야만 합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구원에 대한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것들이 전부 그분 안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알고 소유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생하게 전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참된 교회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복음의 진실함과 생생함이 전달되어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 일에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전문을 축소 편집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그레엄 골즈워드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구조로 읽는 구약 성경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복음의 구조(framework)로 구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읽을 때에만 구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이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을 신약과 통일성을 지닌 하나의 동질체(a unity)로 바라보았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총체적으로 조망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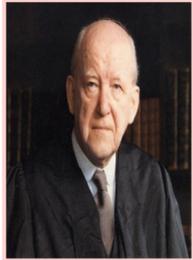
하지만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만큼 구약에 정통하지 못한 우리는 주의해야만 합니다. 구약 성경을 '구약 그 자체의 입장'에서 바라보며 해석하는것을 어려워 하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 당시의 회중들과 시대와 지역과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써 구약이 쓰여진 배경으로 되돌아가서 구약 그 자체를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구약이 기록된 당시에 전해진 메시지 그 자체를 이해하고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에만, 우리는 구약 성경을 바르게 신약 성경과 연결하여 복음의 구조 안에서 통일성 있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하기 위한 두가지 진리

구약 성경에 나타난 구원 역사의 살아 움직이는 과

교회사



추천도서



샌드필즈의 부흥

의사였던 로이드 존스 목사는 내과 진료를 통해 가난한 자들이나 귀족들 가운데 상당수가 술과 성생활의 방종으로 망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의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의 문제가 신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영적인 데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죄와 영적인 빈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과 형 해럴드의 비극적인 요절 속에서는 인생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죄인들의 한계와 무상함을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과 상태에 놓인 죄인들에게 선포된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1927년 로이드 존스는 애버러번의 샌드필즈 지역 목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노동자 계층과 빈곤층들이 많았습니다. 높은 실업률에 시달리고 있었고, 희망을 잃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첫 설교로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펼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선포합니다. 그

세상을 바꾼 종교개혁 이야기

종교개혁 시대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 복음다운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 준 시대였습니다. 교회 안의 사소한 것들로 말미암은 논쟁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과도 같은 참 복음이란 무엇인가, 참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신앙 때문에 박해와 순교까지 당해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저자인 니콜스는 이러한 종교 개혁기의 삶과 죽음을 놓고 벌인 신앙과 신학 논쟁의 시대를 통해 건강한 교회의 모토가 되어야 할 종교개혁의 다섯 가지 강령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켜 줍니다. -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

또한 그는 종교개혁사의 중요한 인물들을 조명합니다. 너무 많지 하나로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다혈질의 다재다능했던

20세기 초의 부흥 / 1907revival.com

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일으키는 역사를 그의 말씀을 통해 허락하였습니다. 설교를 들었던 술주정뱅이들과 불같은 성질을 가진 자들, 항만 노동자들, 철강회사 직원들, 무당들, 광부들이 회심한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는 교회 안에서 뮤지컬과 연극이나 스포츠클럽 등의 활동을 없애고 대신 월요 저녁 기도회를 활성화시킵니다. 기도회에는 매주 2백~3백 명이 참석했습니다. 토요 밤 전도회 모임이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토의하는 모임으로 바뀌어졌고, 여성 성경공부 반이 처음에는 집에서 모였으나 점점 그 수가 늘어나자 교회로 옮겨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1년 동안 그의 사역에서 93명의 세계 교인들이 53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회는 변했고,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산업 지역에서 기독교를 살아있는 참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이를 '샌드필즈의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스티븐 니콜스 / 부흥과 개혁사

루터, 어느 중년 사내들의 저녁 식사에서 시작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 이야기, 제네바에서의 운명적인 허룻밤이 25년간 제네바를 위대한 개혁 도시와 개혁 교회의 모델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칼빈, 이혼과 결혼을 반복하면서 영국 종교개혁과 국교회의 원조가 된 헨리 8세,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영국 종교개혁자 크랜머 등을 살핍니다.

우리는 스티븐 니콜스가 안내하는 종교개혁 여행을 통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신앙, 그들의 확신과 투쟁, 그들의 모범과 실수를 통해 그들이 걸어갔던 신앙의 발자취를 신실하게 뒤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추천합니다.

소식지 전체에 대한 구독은 참교주 홈페이지(www.forttruechurch.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